

총기 51년 (2022년) 새해 종령 법어

팔정도(八正道)의 길로 용맹정진



종령 법공 대종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비추어져서 일체의 곤란과 역난이 소멸되고, 마음에는 밝고 큰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과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체가 고(苦)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인생고(人生苦)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중생의 공통된 인연사(因緣事)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개고(一切皆苦)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나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써 고난과 괴로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일체중생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임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12간지 가운데 용맹스러움을 나타

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이 컸지만, 올해는 일체의 곤란과 역난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 안락과 평온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드코로나 상황이 말해주듯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십이인연(十二因緣)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생들의 무명(無明)과 공업(共業)에서 비롯된 역병(疫病)은 결국 우리 삶의 생노사(生老死)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른 행과 바른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불교의 실천적 삶이요, 좁은 의미에서는 방역(防疫)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노력이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이요, 부단한 노력이 용맹정진(勇猛精進)입니다.

그 용맹은 임인년 호랑이의 품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때사에 용맹정진하는 자세로 일체 고통을 여의고 일체 역병을 극복해나가야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고, 새해 아침의 밝은 태양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제20대 통리원장에 우인 정사 선출

159차 종의회서 인준, 12월 27일 임기 시작



제20대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선출 직후 종의회에서 합장례를 하고 있다.

불교총지중 제20대 통리원장에 제12대 종의회장(현)인 우인 정사가 선출됐다. 중앙종

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통리원 반야실에서 제159차 종의회를 열고 통리원장에 우인 정사를 선출했다.

당선 소감에서 우인 정사는 “선종후사의 정신으로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승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우인 정사는 2003년 전법관정수계를 수지하며 불교총지중 스승의 길에 올랐다. 2019년도 제12대 종의회의장에 이어 현 13대 종의회의장을 연임하는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왔다.

통리원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임기를 시작했다.<관련기사 3면>

박재원 기자

통리원장 우인 정사 수행이력

- 2003년 전법관정 수계
- 2006년 실보사 주교
- 2010년 개천사 주교
- 2010년 제16대 통리원 사회부장
- 2013년 제17대 통리원 재무부장
- 2013년 불교총지중유지재단 이사
- 2016년 제18대 통리원 총무부장
- 2018년 화음사 주교
- 2019년 제12대 종의회의장
- 2021년 제13대 종의회의장(현)
- 2021년 제20대 통리원장 선출

임인년(壬寅年) 통리원장 신년사

지혜와 복덕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교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건강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도 여러분, 올해는 총기 51년으로서 총지중이 창종한 지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정통밀교 중흥의 씨앗을 뿌리시고, 총지중 모든 성원들이 그 씨앗을 가꾸고 키워온 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옴마니반메훔에 진심한 열원과 서원을 담고 걸어온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마음의 길이며 진리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자



통리원장 우인 정사

교도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현현하시는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깃들어 복덕과 지혜가 창성(昌盛)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중/조/법/어

사람은 고난하여 성공하나니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지 면 안 내

2면 교계 신년법어
6,7면 종령예하 창종 50주년 인터뷰

5면 종단 신년사
8면 창종 50주년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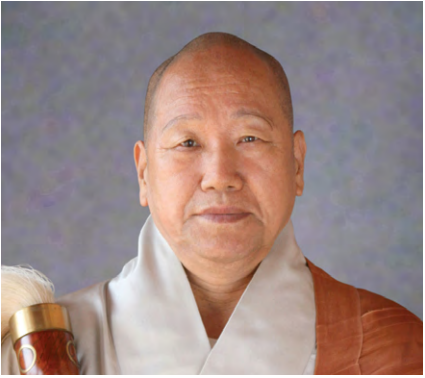
총기 51년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 짜 _ 총기 51년 1월 13일(목) 오후 1시
장 소 _ 본산 총지사 서원당
참석 대상 _ 전국 기로, 현직 스승

※ 교도 참석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사원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인류는 자연과 공존하고 하나 돼야

명(無明)을 몰아내고 국민의 가슴마다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祈願)합니다.

공존(共存)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연기법(緣起法)입니다. 즉 인연생기(因緣生起)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입니다. 모든 존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성립하였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 사라지는 중중제망(重重帝網)의 연기세계입니다.

전(全) 세계적으로 창궐(猖獗)한 코로나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自慢心)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對應)입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새해에는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으로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超越)하여 모두가 보살심(菩薩心)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幸福)하고 세상이 화평(和平)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인류(人類)시여!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福樂)을 누리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話頭)를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 번만번 챙기고 의심하면 물록 ‘참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만유의 본질을 바로 보는 안목(眼目)이 열리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비원(悲願)을 실천하여 인류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옹 스님

수행과 기도가 진정한 보배

대립된 경계에서 벗어나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한결같은 신심으로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계를 지니고 기도와 선정을 닦으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수행과 기도가 진정한 보배임을 알아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하여야합니다.

고통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으니 고집과 아집을 떠나, 자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새해의 대운이 열립니다. 기나긴 꿈속에서 깨어날 인연을 만났으니 오직 바른 법에 의지하여 정진하십시오.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후인이 공연히 옳고 그름을 논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법령을 전할 것도 없음이요, 세상이 깨끗하고 깨끗한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를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임인년(壬寅年)의 새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전 세계에 가득한 코로나 질병과 지구촌의 갈등과 대립, 기아와 전쟁 등 칠흑(漆黑)의 무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쉬지 않고 참구하여 깨달음에 이르길

담갈산하로(擔拈山下路)로다. 나무아미타불

새것 헌것은 흰 구름 같음이며 가고 오는 것 봄날 꿈이로다. 늙고 할벗은 중은 편해서 일이 없으니 땀나무 등에 지고 산길 내려오네. <중략>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집안에는 참구(參究)라는 뿌리가 유일(有一)하다.

이를 달마대사의 소림면벽(小林面壁)의 가풍(家風)이라 한다. 묻는 물음에도 대답하는 대답에도 이러하건 저러하건 새해가 오건 이는 물결이요 참구는 물이다. 물결은 물을 떠날 수 없고 물은 물결을 이루지만 물이 근본이요 전부다.

새해는 임인(壬寅)년이라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이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위엄과 용맹함, 지혜를 수호하는 영물이다. 당대의 선지식을 호랑이라 지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승보살이자 협시보살 가운데 하나인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지혜를 전할 때 호랑이가

함께 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도(道) 닦는 사람은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日常)속에서 지혜의 눈으로 참구하고 법을 보시한다. 예로부터 도(道)를 성취한 대선지식(大善知識)들이 용맹정진 한다는 것도 바로 이 호랑이의 기상처럼 용감하게 참구한다는 뜻이다.

백전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달력이나 넘기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에만 매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정진하고 지혜롭게 살며 일편단심 도(道)에 드는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면 반드시 경성 성불한다.

물질의 복은 겹질이고 마음의 복은 복의 내용이다.

코로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복(福)의 내용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부대중들이여! 쉬지 않고 참구하여 육체에 코로나도 이겨내고 마음에 깨달음도 얻길 바란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정정 스님

공심(公心) 밝혀, 공도(公道)를 세우자

공사(公私)를 세워서 진실이 살아나도록 진각(眞覺)의 종문을 법계에 헌공(獻供)하니 각성(覺性) 깊은 선남선녀가 정도를 만듭시다.

지혜 밝고 공도를 세워야 지도자가 되고 국민이 먼저 공심을 일으켜 성스럽게 되면 사도(私道)의 덫을 뛰어넘는 맑은 사람이 따뜻한 웃음 짓는 나라의 길잡이가 됩니다.

생명은 중중(重重) 무진(無盡) 서로 어울려서 저마다 빛 품은 품격으로

로 장엄세계 나뉩니다. 미증유의 역병이 인생의 안락을 위협하지만 공존의 자비심으로 그 아픔을 이겨갑시다.

종교가 공심을 세워 본보기를 보이면 정치는 정법을 따라서 정론으로 겨루고 경제는 공영을 향하여 발전을 더 하여 다 함께 즐거운 세상이 여기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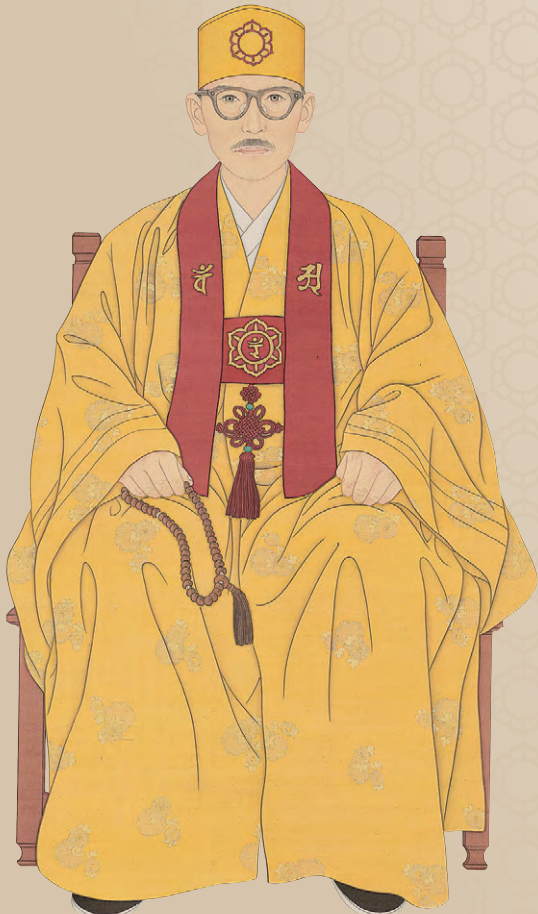
기쁨이 슬픔을 다독여서 새 기운을 북돋워서 새해에도 손잡고 화순(和順)하며 수행합시다.

새해라 하니 새해가 어디서 왔는가? 지난해를 보냈더니 어디로 보냈는가? 거래하처(去來何處)며 부시하물(復是何物)인가. 가고 온 곳이 어느 곳이며 다시 이 무엇인가. 양구(良久) 청혜철골빈(淸兮徹骨貧)이며 활유위음전(活有威音前)이로다. 앞서서 빠져 드러난 가난이여 위음왕불전부터 살았느니라.

사부대중이여! 이 백비일구(百非一句)가 어떠한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 데로 이 늙은 중이 오늘 아침 산에 올라 나무 지게 목발 두드리며 부르던 노래 한 자리 다시 불러보겠다.

실구여백운(新舊如白雲)이며 거래춘몽사(去來春夢事)로다. 노납시안일(老納是安逸)하니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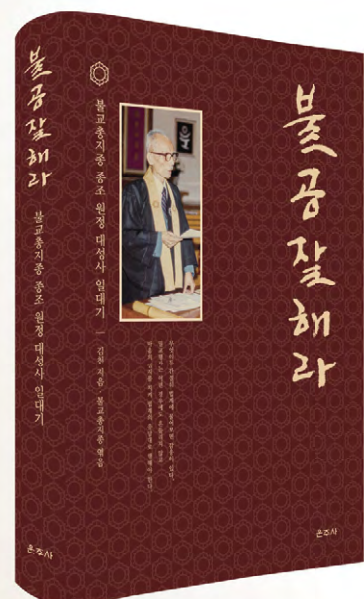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밀교경전의 번역과 편찬, 그리고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 현대 한국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원정 대성사!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을 밝힌 ‘생활불교, 재가불교’ 종단 불교총지종!



불공 잘 해라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위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

‘창종정신과 수행자세, 교화의지 새롭게 다져야’

12월 24일, 총기 50년 창교절 기념법회 전국서 봉행



총기 50년 창교절 기념 법회가 전국사원에서 봉행됐다. =사진 본산 총지사

총기 50년 창교절 기념 법회가 창교절인 12월 24일 오전 10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지난 50년이 종단 초석과 대들보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웅장한 자태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화의지를 새롭게 다지길 당부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창교절 유시문을 통해 “2022년은 총기 51년이자 창종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총기 51년의 의미는 단순히 51년의 시작이 아니라 창종 원년과 같이 새로운 총기 1년의 시작이라는 마음이 집과 각오로써 종단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창종 당시의 정신과 수행 자세, 교화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총지종을 지탱해 온 원동력은 승단과 교도의 삼밀수행과 육행실전의 용맹정진과 승속동수(僧俗同修)를 통한 무한한 애종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며 승단과 교도 모두가 창종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되기를 서원했다.

막존지해(莫存知解)

지혜의 눈

청장년기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복잡
자신의 변혁을 위해서는 수행이 우선되어야

현관(玄關)은 외부에서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경계에 있는 공간으로, 건축에서는 주택의 정면에 낸 출입구를 이릅니다. 현관은 본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사찰의 첫 번째 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에서 이를 집에 들어가는 입구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우리말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관은 깊고 묘한 이치에 드는 관문(關門)의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주문(一柱門)에 해당하는데 기둥에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와 같은 글귀가 쓰인 주련이 걸려있기도 하지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지해(知解)를 버리라는 의미로, 지해란 지식으로 알려는 행위로 ‘알음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분별지(分別智)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분별지는 현(玄)이라는 글자와 반대편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현(玄)이라는 글자는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는 행위와 누에가 고치 안에서 변신하여 나비가 되는 변화를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누에는 고치 안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현(玄)은 ‘가물’로 새기는데 가물은 검은 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보름달 넓이의 1/10밖에 되지 않는, 별이 거의 안 보이는 매우 좁은 영역을 수개월에 걸쳐 촬영한 것을 겹쳐서 얻어낸 사진에는 수천 수 만개의 은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玄)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었던 검은 하늘인 딥필드(deep field)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한 관문이 바로 현관인 것이지요. 그래서 현관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주춤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세 번의 커다란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대개 십대 중반의 사춘기쯤에 폭발적으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청장년기로 신체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정신적 변화가 폭주하기 시작하지요. 이윽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쉽

게 정신적 성숙이 동반되지 않지요. 대개 삼십 대의 장년기에 이루는 성취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기에 그것을 영속(永續)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더 집착하려고 하지요. 비유하자면 현관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놓고 새로운 단계로의 걸음을 내딛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청장년기에 사회생활에서 얻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청장년기의 경험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접어들면 모든 사람의 시야는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청장년기에 눈에 보이는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집착했다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변화로 말했지만, 실은 나이와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익숙한 세계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쉽게 결정하기에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익숙한 세계는 ‘집’이고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은 그 ‘집’을 벗어나는 것으로 불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출가(出家)에 해당 합니다. 몸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지만 정신적 변화는 지체현상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때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경전(經典)입니다.

여기서 경전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화책도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면 경전이 됩니다. 문자가 아닌 풀과 나무와 돌과 시냇물과 바람과 구름과 햇살과 달빛도 내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면 경전이 됩니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게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면 역시 경전입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변혁시키기 위한 수행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제20대 통리원 집행부 시무 불공

총무부장 록경, 재무부장 승원 정사 인선



제20대 통리원 집행부가 총지사 서원당에서 시무불공 후 임기에 들어갔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총무부장에 록경 정사, 재무부장에 승원 정사를 집행부로 인선하고,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다.

제20대 통리원 집행부는 총무원과 본산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시무불공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우인 정사는 “오늘 불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다.”며 “모든 분들의 원력과 협조로 20대 통리원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록경 정사는 제 9대, 11대 중앙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

총의회 의원, 사회복지재단 이사,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무부장 승원 정사는 제9대와 11대, 12대 중앙총의원, 제19대 통리원 교정부장을 역임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하디귀한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와 이후 변이 바이러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출현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이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 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는 품고 있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不二)와 화쟁(和靜)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임인년 새해 우리 불교계는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활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이면 누구나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저마다 품은 간절한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새해 새 빛이 온 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지구촌을 넘어 사이버 세상까지 능히 비춥니다.

우리 모두 새 희망을 노래합니다. 서원을 세웁시다. 믿음으로 정진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면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마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계행과 하심, 그리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성을 찾아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국민은 개인의 행복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려는 노력을 하고, 국가는 국민의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 행복지수를 더 높이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장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인류가 다함께 잘 사는 데도 기여해야 합니다.

새해는 진각선종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화이념과 방편을 펴는 종단으로서 현세정화를 위한 진호국가불사에 매진해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터전이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새롭게 서원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진언행자와 불자, 나아가 국민의 복지증진이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뜻깊게 하는 우리들의 서원이 되도록 합시다.

상호공양 정신으로 우리 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만다라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용맹과 지혜의 밝은 기상으로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 임인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일체의 병마가 사라지고, 경제난과 각종 사회악이 해소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큰 희망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편과 피로가 쌓여가지만, 더욱 굳건한 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간다면 반

드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고, 대자대비의 보살이 되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 일체의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그러나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용기를 오랜 시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옛부처와 함께 가면 신선하고 즐거우니 모든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화경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년 한 해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역병도 물리쳐 자유롭고, 역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지쳤던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통과 시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를 다시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

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존재해나가는 생명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인간으로서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명제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엄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왕삼매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곤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어려움과 고통을

진흙으로 삼아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희망의 연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용맹과 기상과 용비의 호랑이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호랑이처럼 솟아올라 힘차게 걸어 나갈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해가 되길 다시 한 번 빕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사람원장 범경 정사

안인바라밀의 해

수 있습니다. 역경은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역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겨내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외경(外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심(內心)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온과 육근을 제어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임인년에는 호랑이와 같은 용맹정진으로 모든 어려움을 박차고 헤쳐 나

가며, 마음에 결림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분별이 없이 광대원만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안인(安忍)에서 나옵니다. 안인은 미묘한 약이라 분노의 독을 치료하나니 그 참는 힘으로 다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덕의 보배요 평화수라 번뇌에 흔들림이 없고 중생의 죄업의 때를 씻어줍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안인으로써 즐겁고 편안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임인년에는 몸과 마음이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굳건해지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종의회 부의장 서령 정사

인연생(因緣生) 인연멸(因緣滅)

연의 모든 것은 인연과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인연에 따라 만나지고 인연이 다하고 없어지면 만나지지 않습니다.

인연생(因緣生) 인연멸(因緣滅)의 연속과정이 삶인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 놓고 인간의 이기심인 이 인(因)의 결과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과인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이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편해집니다

다.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깊은 괴로움 속에 빠

지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신축년도 저물어서 지나고 임인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는 내가 지은 모든 것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본다면 임인년 한해가 편안한 한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활기차게 힘을 내서 임인년 한해를 멋지게 시작합시다. 성도합시다.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검은 호랑이의 해를 밝히며

오래 신년사라고 한다면 희망찬 단어들이 등장해야 하지만, 지난 신축년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이제는 그만 사라질 때도 되었던

만, 오히려 바이러스의 변이까지 출현하여 우리는 더욱 위중하고 피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용맹정진으로 어떠한 난국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인간의 육신을 비롯하여 만물만생의 구성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무한한 은혜! 이것이 바로 법신부처님의 설법 일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한톨의 곡식, 풀잎 하나에도 우주 정신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얹히고 설키는 인간관

계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금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될 때까지 숭한 관계에서 비롯된 은혜들이 쌓여진 결과입니다.

자연의 은혜 보답은 일상생활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자세로 생활함이 진실한 불자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법을 만나 수행하는 우리 불자

들은 인연과보의 대 진리 앞에 탐심, 진심, 치심으로 살아온 것을 지심으로 참회하며 동체대비를 실천합니다.

용맹과 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검은 호랑이의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필코 바이러스를 영원히 물리칠 뿐 아니라, 우리 불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녕,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법신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지계(持戒)의 해로 삼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희망에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장은 내적 성숙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계(持戒)를 바탕으로 몸과 입과 마음

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청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시키고, 퇴전 없는 불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기개로써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지계(持戒)의 해로 삼으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맹과 활기찬 기운을 듬뿍 받아 매사에 진취적 발전과 소원성취 있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대구경북교구장 범상 정사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은 세계가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자신을 잃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無緣大慈)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펼쳐 나아가면 지금의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1965년 라디오 연설에서 “과거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으며, 미국

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그의 저서 <이성의 삶>에서 “과거를 기억 못 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미래의 소원을 먼저 빌었다면, 올해는 먼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壬寅年

불기 2566년

2022년

BTN불교TV

2022년 신년광고 방송시간 안내

2021년 한해도 BTN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신년광고 방송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종 단 명	불교총지종
기 간	01월01일 ~ 01월 31일
횟 수	1일 1회(총 31회)
방송시간	13:56(±5분~10분 오차 발생)

요일별 시간안내

기 본 : 14시 전(13:50~58 예정)

화 요 일 : 13시 30분 전(13:20~30 예정)

금 요 일 : 14시 30분 전(14:20~30 예정)

olleh G 233번

B tv 305번

U TV 275번

sky life 181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02 - 3270 - 3300 BTN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방송포구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방송시간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종 50주년 기념,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특별 인터뷰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1972년 12월 24일, 대승불교의 최상승의 가르침인 밀교를 만 천하에 천명하시며, 신라와 고려 시대에 흥왕했던 한국의 정통 밀교를 다시금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대성사께서 총지종을 창종하신 뜻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밀 교를 중흥시키는 물론이요, 호국불교와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를 꾀하셨 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즉신성불(即身成佛)의 대도(大道)를 열어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대비원력으로 불교총지 종을 세우셨으니 이 어찌 일대사(一大事) 인연(因緣)이 아니겠습니까. <총기 50년 창 교절 종령 유시문 중에서>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맞이하여 제12대 종령 법공 예하게 창종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미래상에 대해 사자후를 청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지난해 발간된 ‘불교총지종 50년사’에서 발문했다. 편집자 주



종령 법공 대종사

1. 총지종의 역사가 어느덧 반세기를 맞이 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총지종 창 종 50년을 맞는 소회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스승으로서 종단에 정식으로 입문 한 때가 총기 12년도이니 어느새 40년이라 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도 로서 창종 직후부터 종조님을 직접 뵈고 여 러 차례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확신 에 차서 하시던 말씀들이 지금도 귀에 쟁쟁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총지종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일이 다 말하 기도 어렵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전국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창종 직후 전국 서원 당에 피아노를 들고 합창단을 만들었어 요. 그리고 매년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정말 환희스러웠습니다. 희망이 넘쳐났던 모습이

“

생사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하셨던

선배 스승님들께 감사

”

사사불공, 처처불공, 시시불공이 생활불교의 핵심 수행과 현실생활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함께 닦아야

합니다.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생사 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하셨던 선배스승 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종단이 있다는 것 이 감사할 뿐입니다. 종조님을 비롯한 수많 은 스승과 교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종 직후부터 총기 20년 정도까지 우리 종단은 교세가 정말 끝없이 확장되었어요. 그 기세라면 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게 발전하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 가졌던 꿈 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 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장했으니 충분히 잘 해왔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 는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한 종단이 어떻게까지 급성장한 데에는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 를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만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종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 가운데 밀교로서, 특히 생활불교로 출발한 우리 종단은 시대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좋 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이 어려운 환 경 속에서 발전하기까지, 창종 당시 스승님 들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도분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분들이 종단 을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뒷받침해주셨지요. 그래서 보은하는 차원에서 경로법회를 열었 어요. 그 당시에는 괴산수련원에서 주로 했 는데, 2박3일 동안 재미있게 마당놀이도 하 고 노래도 부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도 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군요.

3. 총지종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종단 내 적으로, 그리고 한국불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짚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활불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통 불교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어요. 모든 사업들이 생활불교라는 방향으로 움직였습 니다. 첫째는 교육사업에 주력했는데요. 현 재의 통리원 건물이 한마음유치원으로 건립 되었는데 어린이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 주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동해 중학교를 인수해서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해 서도 나섰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하는 역할을 실천해왔지요. 또한 미래 정보 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BBS와 BTN의 창립과 운영

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BTN은 처음 출발할 때 이사 종단이 조계종과 우리 밖에 없었어요. 조계종과 우리 종단이 규모 나 재원에서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나란 히 참여해서 불교 포교에 힘을 기울였던 겁 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미디어 포교에 발 빠르게 적극 참여했던 점은 의미 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4. 원정대성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반드시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창교 정신에도 있지만 우리 종단은 활동하 면서 닦고 닦으면서 활동한다는 생활불교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불교의 핵심이 사사불공, 처처불공, 시시불공입니다. 생활 과 불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이 곧 불 법이고 불법이 곧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 통불교와는 분명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일 반적으로 스님들은 오직 수행에 몰두하고 교도들은 수행보다는 기복적인 성향이 있는 데 종조님께서서는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닦아야 한다고 하 셧죠. 그 점을 우선 기억해야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해탈법을 가슴에 항상 담 고 있습니다. ‘나의 재물을 남에게 주면 주 는 그때 줄었지만 도로 돌아 불어옴은 우주

새해



많이 받으세요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서초구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미미위 세곡키움센터
김민주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동참, 대동단합하여 매진해 달라’

자연 법칙이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 아납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려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주문하신 종조님의 말씀을 가훈이자 지표로 삼아 매 순간 이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총지종이 큰 위기와 갈등 없이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가정에도 부모의 성향이 좌우하듯이 종조님의 남다른 청렴함과 강직함이 종단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스승과 교도들 모두 종조님의 수행가풍이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열정적으로 교화하고 단결, 화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건 철저히 공명정대하다는 점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정이나 사리사욕이 전혀 용납이 안 되지요. 이것은 법이나 계율로 강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배워왔고 체질화 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6. 총지종의 수행과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점이자 우수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교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전통불교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종조님께서는 창종하실 때 이미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규범을 치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행과 현실생활을 둘로 나누지 않고 같이 닦으라고 하시면서 월초불공 제도를 마련하셨지요. 매월 새 달이 시작되는 첫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불공을 올리게 한 겁니다. 모든 교도들이 소중하게 받들어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전통이야말로 어디에 내놓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교에는 계율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종단은 특별하게 계율을 지정하지 않고 승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키되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더욱 더

“ 스승과 교도는 역할만 다를 뿐, 모두 종단의 주인 ”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승직자와 교도 모두 오계를 지키도록 하고 특히 월초불공 기간 동안 더욱더 철저히 지키도록 했는데 이 점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데 아주 적절하고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정시정송의 전통 역시 의미가 큼니다.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정송을 하되 횟수나 불공시간은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평소에는 하루 2분(分)정진, 월초기간에는 4분(分)정진하는 수행 시스템이 정착되었지요. 보시 또한 스스로 정해서 불공정진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실천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참회로써 문제를 풀어갑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니 역올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인과법을 받아들이며 철두철미하게 자기 인과를 깨쳐나갑니다.

그리고 교도와 스승이 신분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닦는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교도나 스승이나 똑같은 수행방법으로 똑같이 수행하다 보니 동질감도 강하고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보고 존중하게 되지요. 자연히 친화력도 높고 신뢰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종단 역사 속에서도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쉽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저는 통한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찍이 방향이 너무나도 옳았고 교육이나 포교가 시대에 부합해 현대적이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종령 법공 대종사

시작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전에 교도들의 자녀와 지역의 어린이들을 지도했던 자성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까지 사원마다 조직되어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남자교도들의 모임인 단월회도 만들어져 온 가족이 범회와 행사에 참여했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여건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유지·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 점이 가장 뼈아프게 납읍니다. 합창단도 사원마다 다 구성되어 있었는데 차츰 소홀해지면서 지금은 교구별로만 활동하고 있어 그 점도 아쉽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한계가 있더라도 시대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선견지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교화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가장 한탄스럽게 생각됩니다.

8.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종단 없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소홀했던 부분을 이제라도 일신해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종단에서 해왔

던 일들과 전통 가운데 가치가 있고 성과가 있는 일들은 곳곳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지론입니다만,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해오던 관성대로 안일하게 현상유지만 한다면 그것은 퇴보일 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찾아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데에 절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총지종 100년의 미래상을 그려봐 주시겠습니까?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십 년 앞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자연훼손과 환경파괴가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극심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인류의 미래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조금도 닮음이 없이 소중하고 동일하다는 동체대비사상이 인류에게 이해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차별적인 사상으로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에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활불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총지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변화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욱 빛을 발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이 그런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0. 끝으로, 총지종의 스승과 교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는 교도나 스승이나 다만 역할만 다를 뿐 다 가족 같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종단의 주인이지요. 지난 50년 동안 승속의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직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모두가 변화에 동참하고 대동단합하여 매진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도와 스승의 애종심과 자금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널리 가닿기를 발원합니다.

인터뷰=BBS불교방송 윤금선 작가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임인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황월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불교총지종의 창종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수행과 교화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불교총지종의 창종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총지종은 밀엄국토 건설과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라는 창종 정신을 바탕으로 정통 밀교의 맥을 여범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국불교협의회 부회장 종단과 BBS불교방송, BTN불교TV 이사종단으로서 한국 불교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총지종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로 우리나라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수립하였고 반세기 역사 속에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라는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바의 어둠 속에서도 큰 빛이 되는 수행과 교화의 사부대중 공동체로 거듭 발전해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불교총지종의 창종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사부대중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리원장

도진 정사

밀엄정도 구현해
동행하기를 서원

총지종 창종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총지종은 그동안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계승하면서 종도들의 복지 증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정진해왔습니다.

이제 창종 50주년을 맞아 세우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용맹정진도 원만히 성취될 것입니다.

진각종과 더불어 총지종 또한 그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켜 이 땅 밀엄정도 구현에 동행하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소외된 곳에
등불이 되는 총지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호국불교와 생활불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전해온 불교총지종의 창종 50년을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전국 도심에 현대화된 사원을 세워 밀교 수행법으로 마음의 실상을 찾도록 용맹정진 해온 총지종의 반세기는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밀법의 지혜와 자비로 보듬는 역사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호국안민 정신으로 총지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에게 격려와 지원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으로서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 오신 총지종을 비롯해 불자님들과 불교계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지혜를 밝히고, 어둠과 소외된 곳에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종으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주시길 서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창종 반세기의 거룩한 역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총지종의 가르침을
등대로 삼고자

성도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에 밀교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한국 밀교의 맥을 이은 우리 총지종이 창종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선배님들께서 종단에 계셔서 또 스승으로 계셔서 총지종과 이렇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총지종의 가르침을 등대로 삼아서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

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부산 북구에도 종단이 있습니다. 교도들의 높은 신심을 보면서 생활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생활이라는 종조범어를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불교 발전을 위해서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교총지종 창종 5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가정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도축하 메시지

서울경인 신정회지회 지회장 김은숙 50주년 맞아 종조님 이하 종단을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총지종의 백년대계를 향해 무진서원합니다. 관성사 신정회 회장 홍순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50년사와 종조님 일대기를 통하여 원정님의 대비원력이 온 누리에 널리 홍포되기를 서원합니다. 밀인사 신정회 회장 원행지 삼계 중생을 모두 건지고 시방세계 뻗어갈 우리 총지종 파이팅! 벽통사 신정회 회장 양재범 고해중생들에게 수행 방편을 알려주신 종조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범사 신정회 회장 최인희 옴마니반메흠 염송으로 소원을 이루어 고맙습니다. 교화로 더 많은 분들이 소원성취 바랍니다. 실지사 신정회 회장 인명화 50년을 함께하며 일일시호일하였습니다. 우리 총지종이 앞으로도 일일시호일하길 바랍니다. 지인사 신정회 회장 전화자 창종 5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지사 신정회 회장 최영아 정통밀교의 총지종 50년! 종지와 수행법으로 具大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충청전라 신정회지회 지회장, 만보사 신정회장 민순분 창종 50년 축하드립니다. 대성사님의 법령을 이어받아 영겁으로 이어갈 우리 총지종이 되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 신정회지회 지회장, 단음사 신정회장 황월분 불교총지종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총지종을 정통밀교종단으로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건화사 신정회 회장 류순옥 총기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비추어지길 서원합니다. 국광사 신정회 회장 김순란 종조님 가르침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총지종 교세발전 빕니다. 수인사 신정회 회장 이경화 불교총지종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자 등대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길 발원합니다. 부산경남 신정회지회 지회장 류길자 밀교의 가르침이 세계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서원합니다. 관음사 신정회 회장 조은정 창종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불교총지종이 되길 서원합니다. 단향사 신정회 회장 박귀임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자들에게 신뢰받는 불교총지종 종단이 되길 염원합니다. 덕화사 신정회 회장 윤숙희 창종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밀행사 신정회 회장 김현숙 창종 반세기 축하드리고, 밀교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을 서원합니다. 법성사 신정회 회장 신혜영 창종 50주년 다함께 경축 드리며, '육근六根'을 잘 다스리는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도록 서원합니다. 삼밀사 신정회 회장 김화자 진언 옴마니반메흠의 밝은 기운이 곳곳에 미쳐져서 모두 다 행복하시길 서원합니다. 성화사 신정회 회장 허태연 불교총지종 5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실보사 신정회 회장 박금자 심오하고도 심오하고 깊고도 깊은 부처님 법을 알게 하여 깨치는 길로 인도해주신 종조님께 늘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마음 추스려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운천사 신정회 회장 이성미 창종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많은 발전 서원합니다. 자석사 신정회 회장 이지은 부처님과의 인연 일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정각사 신정회 회장 황영순 총지종 50주년을 축하하며 선대 스승님들의 원력을 담아 화합단결하여 용맹정진하겠습니다. 화음사 신정회 회장 강순란 총지종 창종 50주년을 화음사 교도들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총지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67년 11월 27일 개교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

동해중학교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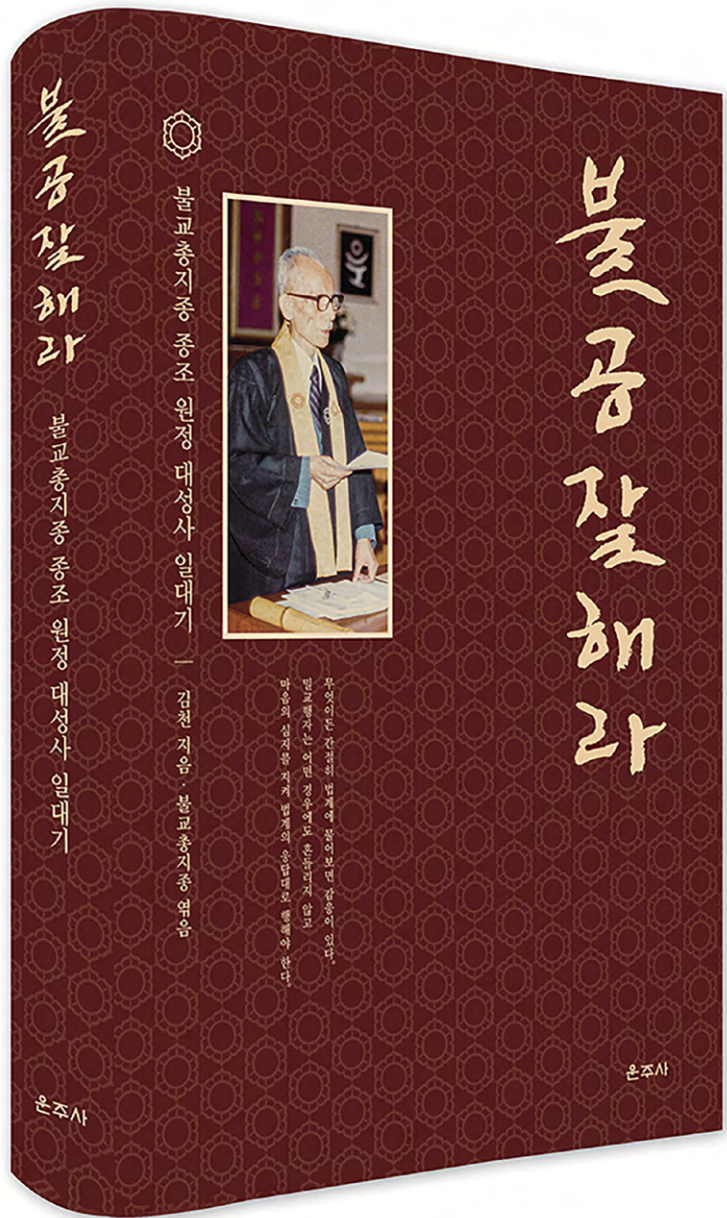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불교총지종 일대사(一大事) 인연(因緣)을 펼치다 상

상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하 종단 반세기의 기록 ‘불교총지종 50년사’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하여 제19대 통리원 집행부가 정책사업으로 2년 여 간 준비해온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와 종단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불교총지종 50년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발간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종단 최초로 발간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는 종조 선양으로 교화와 제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50년사’는 종단의 지난 반세기를 통해 한국 현대밀교역사를 정리하고 종단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불공 잘해라’, 다음호에서는 ‘불교총지종 50년사’를 요약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불공 잘해라’
김천 지음 | 불교총지종 엮음
141×205(국판 변형) | 전면컬러
양장 | 284쪽 | 출간일 2021년 12월 15일
값 15,000원
ISBN 978-89-5746-665-0 03220

한국 전통 밀교의 맥을 잇다

한국의 대표적 밀교종단이자 재가 종단인 ‘불교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담았다.

고려까지 번창하다 맥이 끊긴 밀교는 원정 대성사와 회당 대종사의 두 거두에 의해 다시 중흥의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원정의 맥은 총지종으로, 회당의 맥은 진각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원정 대성사는 밀교경전의 편찬과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로 인해 현대 한국 밀교가 비로소 탄탄한 이론과 수행의 토대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대성사가 태어나서 열반에 들기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기록과 기억의 파편들을 꿰어 일생을 정리하고 그 핵심 가르침을 엮은 것으로,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부처님을 찾다

1907년 태어나 1980년에 열반에 든 대성사의 일생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온 삶이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밀양에서 만주까지 걸어서 망명길에 올라 혹독한 고초를 겪는가 하면, 6.25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 포로가 된 외아들을 잃을 뻔했다.

이렇듯 격랑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민중들을 보면서 대

성사는 자신이 할 일을 찾아냈다. 바로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었다.

대성사는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았다. 이미 만주 생활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경전공부와 참선, 명상 등은 물론이고, 자신이 실제 체험한 징명염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 길은 산중불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민중을 구하는 새로운 불교여야 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참된 수행법을 찾아내, 중생들 모두를 행복과 해탈의 자리로 이끌어야 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

밀교수행이 그 답이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은 밀교가 유일했다. 일반 민중들도 현실 속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의 성취가 가능한 길이 밀교수행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밀교의 교리체계, 의식과 의례, 수행체계를 정리하여 정통밀교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밀교 신행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대성사는 이를 위해 팔만대장경을 뒤져가며 밀교경전들을 찾아 번역하고 그 정수를 뽑아 체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깨달음과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현실과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을 하여 삼밀을 이루면, 법계와 행자가 평등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법신여래의 삼밀이 행자의 삼밀과도 같아져 결국 즉신성불을 이루게 됨을 가르쳤다.

대성사는 왜 밀교가 가장 수승하고 궁극적인 가르침인지를 설했다.

“밀교는 최상승最上承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다. 완전히 조화를 이룬 세계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실현이다.

본능에만 따르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동물적인 생활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생활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행동하는 단계를 거쳐 인간의 의식과 자연 현상을 되짚어 절대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이다.

그러므로 밀교에는 가장 낮은 욕망과 가장 높고 거룩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악기로 치면 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날날이 따져 들으면 잠음이나 조화롭지 못한 소리가 들려도 일체가 오케스트라의 요소인 것이다.”

결국 대성사는 이러한 밀교의 가르침을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정리하여, 현대 한국 밀교를 개척하고 중흥시켰다.

세간과 출세간, 생활과 불교, 남녀 노소, 승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기도와 생활이 하나되어 성불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불교 종단을 창종한 것이다.

밀엄정토의 큰 서원을 세우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대성사는 항상 총본산 1층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며 앉아 있었다고 전한다.

교도들은 언제든지 총지사에 오면 달리 찾아볼 필요 없이,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대성사를 만나 법에 대한 물음도,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았다. 교도들이 아무런 경계 없이, 아무 때나 종단의 가장 큰 어른과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고 마음을 위로받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은, 가슴 벅찬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중생구제의 큰 원을 세우고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진 또 정진했던 대성사의 마지막 법명이 “불공 잘해라”였으니,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불교총지종이 이제 창종 반세기에 이르게 되었다.

글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KBS 구성작가와 불교 TV 프로듀서, 경향신문 객원기자를 했으며, 현재 프로덕션 맥스웍 대표이자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영화 <동승>으로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편전’ 등이 있다.

삽화 김승연

국정교과서를 비롯하여 위인전, 창작동화 등에 다수의 삽화를 그렸다. 불교신문에 만평을 그렸으며, 소년소녀가장돕기 동시화전에 여러 차례 출품한 바 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2월 21일 ~ 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11/22	20,000	덕화사	이진승	12/6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11/25	10,000	정각사	안한수	12/5	10,000		
관성사	인선	11/22	20,000		법상인	12/14	20,000		수인사	정순득	11/26		10,000	지인사	탁상달	12/7	10,000
	황성녀	12/2	10,000			김진화	12/6			10,000	실보사		무명씨		11/25	20,000	승효제
관음사	신말심	12/9	10,000	동해사	송인근		12/20	10,000	실지사	보현		11/22	10,000	초록 어린이집	승효제	12/14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1/22	20,000	만보사	강명순	12/9	10,000	덕광		11/22	10,000	총지사	이지희		11/25	50,000	
	상지화	11/22	10,000	밀인사	록경	11/22	20,000	연화법		12/2	10,000		강혜란		11/25	10,000	
	수증원	11/22	10,000		정우석	11/28	10,000	정혜정		12/2	10,000		김정환	12/9	10,000		
	밀공정	11/22	10,000		정정희	12/1	5,000	관득		12/5	10,000		백귀임	12/10	10,000		
	총지화	11/22	10,000		록경	12/19	20,000	유승우		12/6	10,000	강승민	12/10	5,000			
	법수원	11/22	10,000		유찬겸	12/19	50,000	이도현		12/6	10,000	최영아	12/15	10,000			
	선도원	11/22	10,000	백월사	신운산	11/26	10,000	이서현		12/6	10,000	홍수민	12/16	10,000			
	법지원	11/22	10,000		법선	11/22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11/25	50,000	통리원	박근진	11/30	10,000	
	일성혜	11/22	10,000	법천사	반야심	11/30	10,000			운천사	반야화	12/5	30,000	화음사	포레스터7 어린이집	최유정	11/29
	사홍화	11/22	10,000	법황사	박미경	11/25	10,000		하재희		11/25	50,000	우인		11/23	10,000	
안주화	11/22	10,000	벽룡사	승원	11/22	10,000	연명구	11/25	10,000	보명심	11/23	10,000					
진일심	11/22	10,000		묘원화	11/22	10,000	구미자	11/30	10,000	무명씨	11/29	10,000					
시각화	11/22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11/25	10,000	최자영	11/30	10,000	무명씨	11/30	10,000				
최상관	11/22	10,000	남영애		12/1	30,000	임지혜	11/30	10,000	강점미	12/4	10,000					
연등원	11/22	10,000	최영미		12/10	50,000	이현직	11/30	10,000	박옥자	12/6	10,000					
자선화	11/22	10,000	이경동		12/10	10,000	하재희	12/3	300,000	무명씨	12/6	10,000					
해정	12/15	10,000	김갑선		12/20	10,000	자석사	도우	12/6	10,000	우인	12/14	10,000				
단향사	지홍	12/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11/25	50,000	지현	12/6	10,000	보명심		12/14	10,000	
덕화사	법상인	11/23	20,000		김용기	11/25	30,000					힐스어린이 이집	곽방은	12/10	50,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7>

중도 정견을 세우고 지혜를 밝히자!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팔만 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이 있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의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달라 불교 전문가들조차 혼란이 적지 않다.

21세기에 들어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문자로 기록했다는 팔리어 경전 니까야(Nikāya, 한문역 아함경)가 우리말로 번역 소개하면서 ‘이것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대승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불교계는 다소 혼란에 빠져 있다.

성철스님도 일찍이 이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을 접했던 모양이다.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에서 100일 가까이 설한 <백일법문>이 바로 그 답이라 하겠다.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팔리어 초기경전과 한문역 아함경을 비교 분석하면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 그리고 선종도 모두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니 불교의 근본은 중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초기경전인 니까야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대승은 불교가 아니라 하거나,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이니 배울 것이 없다며 양극단에 집착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불교는 대승과 선 전통이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21세기 들어 팔리어 초기경전이 번역 소개되어 불교 경전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졌다. 이것이 충돌하면 혼란이 오겠지만, 서로 융합하여 회통한다면 한국불교는 세계적 인 불교사상의 보물창고가 될 것이고 인류의 온갖 갈등을 화합케



하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中道)를 공부하여 바른 안목인 정견(正見)을 세우면, 세상을 지혜롭게 보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불교의 지혜이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는 나와 너, 좌와 우, 선과 악, 옳고 그름 등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집착을 떠나되 양극단을 다 밝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보통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집착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남을 경쟁 상대로 보고 내가 더 이익보기를 바라고 손해를 보면 화를 내거나 남을 욕하게 된다. 나와 남을 분별하여 항상 상대를 경쟁 내지 대립적으로 보게 되면 늘 초조 불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상대 분별심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나와 나의 것에 집착을 버리고 상대를 분별하여 대립적인 사고를 비우면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 잘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이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이 돌아와 여야 야의 대결이 첨예하고 지지

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친구와 이웃은 물론 부모 형제 사이에도 긴장 갈등 관계가 적지 않다. 이럴 때 불교의 중도 정견을 세워보자.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을 내려놓자. 나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남의 견해도 미워하지 말자. 내 생각을 인정 받으려면 나와 다른 남의 견해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아니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분명한데 다 존중하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바로 보되 집착하여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선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을 존중하되 악은 버려야 한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분은 정견을 모르고 자기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 착각에 빠진 이를 미워하지 말고 연민으로 대하며 정견을 세우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행이고 참된 전법이다.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면 불교의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자리아타의 대승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타면자건(唾面自乾)의 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는 고사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처세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누사덕이란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넓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워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는 동생이 높은 관직에 임용이 되자 동생을 조용히 불러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남의 시샘이 클 터인데 너는 어찌 처신할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닦겠습니까.’라는 동생의 대답에 누사덕은 나지막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를 것이야.’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침을 닦게 되면 더 크게 화를 낼 것이니 닦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누사덕의 이 타면자건(唾面自乾) 고사를 오늘날 이 지혜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지도자가 바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는 대통령 시절 오바마 개인 트위터 계정에 모욕적인 악플이 범람했는데 그 악플에는 심지어 ‘검은 원숭이’, ‘원숭이 우리로 돌아가라.’ 등 흑인 비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을 겨냥한 저급한 비방을 끝내 지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이버 침방울이 SNS상에서 그냥 마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바마의 놀라운 포용 정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 시에는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흑인 목사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총, 얼마나 감미로운가...’ 추모사를 읽던 오바마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더니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놀라운 은총)’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주도 없었습니다. 영결식장을 가득 채운 6,000여 명의 참석자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일어나 찬송가를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어떤 흑인 여성은 오바마를 손짓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 도중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그들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지요.



시인
前동해중 교장 탁상달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포용이란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내(忍耐)라는 말의 인은 칼날(刃)을 심장(心)에 올려놓은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즉,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누구나 가슴에 칼날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에 삶이 판가름 납니다. 모든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위에 언급한 누사덕, 오바마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려는 늘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을 나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때로는 남의 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산다면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12/1~30)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도법스님 / 신상환	도서출판 B
	2	인물로 보는 중국 선 사상사	정운 스님	운주사
	3	불공 잘해라	김천	운주사
	4	초기불교이해	각목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중론	김성철	오타쿠
	7	낯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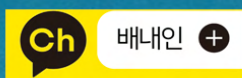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유통상담한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불교계 언론인 자녀에 총지장학금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 전달

2021년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 불교 언론인 자녀들에게 종단이 후원하는 총지장학금이 전달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총지·혜충장학금 전달 및 불교언론인 20년 근속상도 기자상과 함께 수여했다. 올해는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 김현태 법보신문 기자 자녀들에게 총지장학금이, 이재우 밀교신문 기자에 혜충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총지장학금은 일선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애쓰는 기자의 자녀들에게 종단이 2019년도부터 한국불교기자협회를 통해 전달을 시작한 이래, 그동안 총 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장학수혜를 받았다. 신성민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철주야 취재에 진력하는 불교계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정론직필의 언론 자세에 입각하고, 불법 홍포의 최전선에



서 신심과 열정으로 꾸준히 활동하신 것과 함께, 이번 한국불교기자상 최고의 영예 수상인 선원빈 기자는 ‘가톨릭 순례길 사업에 대한 비판 보도 및 백지화 성과’를 보도한 김내영 법보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약 37주간 8개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24개의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완료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회원,

석관실버센터 2021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성료 지역 어르신 복지향상 기여

프로그램 강사,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출입자 관리와 프로그램 이용 정원 제한을 두는 노력으로 센터 내 확진자 발생 문제가 근 1년간 발생하지 않았으며, 더욱 안전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영어·한자성어 학습프로그램 △컴퓨터·인터넷(초·중급) 정보화 프로그램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 연계 스마트폰 교육 ‘스마트클래스’ △치매예방 특화사업 ‘두뇌건강증진센터’ 두뇌건강클래스·두뇌건강학습지 △성북구 평생학습 특성과 프로그램 지원사업 ‘60+재능나눔아카데미’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전문 봉사 프로그램 ‘석관지니어스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1월 24일부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취미·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 과정을 개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개최

2022년도 예산 심의, 가결

2021년도 제2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정기 이사회가 지난 12월 7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상임이사 원당 정사가 주재하여, 이사 6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재단사무국 추경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 산하시설 석관실버복지센터와 세곡기움센터의 2021년도 추경 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지/문/답 ⑭

삼매야계 (三昧耶, samaya)

삼매야(三昧耶, samaya)란 ‘여려’ 등의 뜻으로, 삼매야계는 범신불과 자신이 일체라는 자각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므로 평등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리심을 불러일으켜 지니므로 보리심계라고도 한다. 삼매야계를 통해 스승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성불하도록 이끌 것을 서원하고 제자는 부처의 가지력에 의하여 번뇌의 장애를 물리쳐 지혜를 얻을 것을 서원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아사리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먼저 삼매야계를 받게 하고나서 관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관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삼매야계를 받아 삼보에 귀의하고 사중금계, 십중금계, 십선계를 실천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관정을 받은 후 비로소 본격적인 밀교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축하합니다

- 수인사** ▶ 이귀선 교도 자녀
공경원 양 해군 군무원 합격
- 화음사** ▶ 김복출 교도 외손자 / 최영미 교도 자녀
강성훈 군 부산대학교 치의대 합격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월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임인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우인 정사 사 감 원 장 법경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법경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종무원 일동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해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중앙종의회	시법사 주교 혜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도관	흥국사 주교 서강
사감원	실지사 주교 덕광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원의원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일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원당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